Chrisal, 산업용 세제 석권 "노린다"

정유 · 항공 · 자동차용 세정제 공략 … Enzyme 성분 이용 인체무해

벨기에 세제기업 Chrisal이 한국시장에 진출, 산업용 세제시장 석권을 준비중이다.

크리살은 2002년 상반기에 한국에 크리살 제품을 선보여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내 세제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라고 5월3일 밝혔다.

크리살 제품은 항공기 세정제를 비롯해 군수기업, 정유업계, 자동차산업 등 산업용은 물론 병원과 가정 등 일반용에 이르기까지 사용 폭이 넓다. 특히, Enzyme 등 특수성분을 사용해 인체 피부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크리살은 이미 벨기에를 비롯한 국제 연구기관과 대학교 연구소를 통해 제품의 무해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환경친화적 세제를 선호하는 추세가 두드러진 것과 관련해 크리살은 우선 가정주부 등 일반 수요자를 집중 공략해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세제시장은 수입제품을 포함해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총 9000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세제시장은 애경, 제일제당, LG생활건강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익 있는 가운데 Amway 등 다국적 세제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상태로 크리살이 환경친화와 가격경쟁력, 탁월한 효과 등 3가지 특징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공략할 예정으로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벨기에에 본사를 두고 있는 크리살은 현재 미국, 브라질, 남아프리카, 러시아, 캐나다 등 약 20여개 국가에 해외지사를 두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5/06>